

5)

04 (가)~(다)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가)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 (나)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저것이 멸한다.
- (다) 천지는 만물을 낳는 것을 마음으로 삼고, 인간은 그 마음을 본받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

- ① (가)는 하늘을 절대적이고 도덕적인 원리로 이해한다.
- ② (나)는 불성(佛性)을 지닌 인간만이 소중하다고 여긴다.
- ③ (다)는 인간과 자연의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강조한다.
- ④ (가), (다)는 하늘을 세상사에 관여하지 않는 존재로 규정한다.
- ⑤ (나), (다)는 자연을 무목적적 질서의 체계로 간주한다.

6)

08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모든 인간은 살인자에게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살인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죽임을 당해도 좋다고 동의한 것이다. 사회 계약은 시민의 생명을 저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보전하는 것이다. 사회 계약을 할 때 시민은 국가에게 생명 박탈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을: 법은 각 사람의 개인적 자유 중 최소한의 뒀을 모은 것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법은 개개인의 특수 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자가 세상에 있겠는가? 인간은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타인이나 일반 사회에 양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것이다.

- ① 오판의 가능성이 있는 한 사형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 ② 공동선의 증진보다 개개인의 생명권을 더 존중해야 하는가?
- ③ 모든 인간은 생명의 존엄성을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가?
- ④ 국가는 사회 계약의 관점에서 사형을 집행할 권리를 지니는가?
- ⑤ 사형 집행은 구성원들의 합의와 무관한 국가의 고유 권한인가?

7) 골라.

(가) 갑: 좋은 리듬, 좋은 말씨, 조화로움이 담겨 있는 예술 작품은 청소년에게 좋은 성격을 갖게 하지만, 나쁜 리듬, 나쁜 말씨, 부조화는 나쁜 성격을 갖게 한다.
을: 예술가가 다른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순간, 그는 예술가이기를 포기한 것이며, 예술가에게 윤리적 공감은 독창성을 잃게 하는 것이므로 필요 없다.

(나)

<보기>

- ㄱ. A: 예술 작품에 대한 선별과 검열을 인정하는가?
- ㄴ. A: 예술은 도덕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
- ㄷ. B: 예술은 미적 가치 그 자체만을 추구해야 하는가?
- ㄹ. B: 예술은 사회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하는가?

8)

02 갑, 을의 공통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사회를 이루는 세 계층은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각자의 일에 배치되어야 한다. 각자 자신이 맡은 일에서 탁월함을 발휘하여 조화를 이룰 때 그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

을: 대인이 할 일이 있고 소인이 할 일이 있다. 또 한 사람의 몸에도 여러 장인들이 만든 것을 필요로 하는데, 만약 반드시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것으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천하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지치게 만드는 것이다.

- ① 직업은 타고난 신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 ② 각자의 직업 활동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 ③ 사회 봉사보다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중시해야 한다.
- ④ 직업은 신의 소명으로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이다.
- ⑤ 구성원들이 서로의 역할을 교환함으로써 전인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9)

01 (가), (나)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가)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은 도덕적 행위를 파악하는 토대가 된다. 따라서 '왜 선하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묻기 이전에 '선', '악'이라는 말이 검증 가능한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 (나) 우리는 삶에 직면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무론적 윤리론, 공리주의 윤리론 등 여러 도덕 원리들을 생애, 생명, 직업 등의 현실 생활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보기>

- ㄱ. (가)는 '해야만 한다는 것'의 의미를 규명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 ㄴ. (나)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규범이 없다고 본다.
- ㄷ. (가)는 (나)보다 현실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적다.
- ㄹ. (나)는 (가)에 비해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한 탐구를 중시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06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에 대해 제시할 적절한 해결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드라 하늘에는 진주 그물이 있고, 그 그물은 잘 정돈되어 있어 만일 어떤 한 진주를 주시한다면 그것 속에 다른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세계 내의 각각의 대상들은 단지 그것 자체로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대상들을 서로서로 포함한다. 그러므로 사실상 각각의 대상은 서로 다른 것의 대상이 된다.

<문제 상황>

환경 위기 시계란 전 세계 환경 파괴에 대한 위기감을 시간으로 표시한 것이다. 12시에 가까워질수록 인류의 생존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계는 0~3시(양호), 3~6시(불안), 6~9시(심각), 9~12시(위험)별로 위기 수준을 나타낸다. 2013년 한국의 환경 위기 시각은 9시 31분이고, 전 세계 환경 위기 시각은 9시 19분이다. 여전히 환경 위기 시계는 9시 이후인 위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기>

- ㄱ. 자이는 여러 조건에 의해 형성됨을 깨달아야 한다.
- ㄴ.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깨달아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 ㄷ. 문명을 버리고 무위(無爲)의 질서 체계를 따라야 한다.
- ㄹ.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도의(道義)로써 자연을 관리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08 다음은 A에 대한 어느 학생의 노트 필기이다. ㉠~㉤ 중 옳지 않은 것은?

학습 주제 : A의 의미와 실천

1. A의 구분과 의미

(1) 소극적 A

- 뜻 :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
- 예 : 빈곤, 기아가 없는 것㉡

(2) 적극적 A

- 뜻 :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등 모든 폭력이 제거된 상태㉢
- 예 : 사상의 차별, 정치적 억압이 없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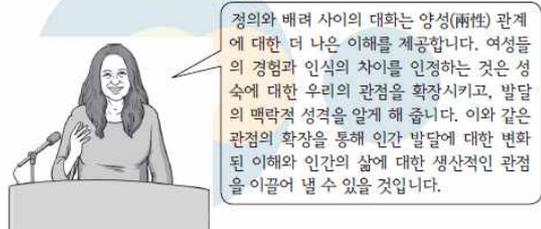
2. A의 실천

(1) 전쟁 방지 노력 : 외교적 소통을 우선시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신뢰 형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12)

8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덕적 이론 안에 배려의 관점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② 여성들의 목소리를 도덕의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③ 남성과 여성이 지닌 도덕성을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
- ④ 남성 중심의 전통적인 도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⑤ 정의와 배려의 윤리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13)

10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심(一心)의 원천은 유(有)와 무(無)를 떠나 홀로 청정하며 삼공(三空)*의 바다는 진(眞)과 속(俗)을 융합하여 맑고 깨끗한 것이다. 맑고 고요하게 융합하였지만 하나인 것은 아니요, 홀로 청정하여 양극을 떠났다고 해서 중간도 아니고, 중간이 아니지만 양극을 떠나 있는 것이다. 자성(自性)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곧바로 완전히 없다고 여기지도 않고,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해서 곧바로 자성이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중략>... 둘을 융합하였지만 하나는 아니므로, 진(眞)과 속(俗)이 세워지지 아니한 바가 없고 염(染)과 정(淨)의 모습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 삼공(三空) : 아공(我空), 법공(法空), 구공(俱空)으로 모든 것은 실체가 없음을 의미함

<보기>

- ㄱ. 나의 본질적 실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ㄴ. 서로 다른 주장도 그 근본은 하나임을 알아야 한다.
- ㄷ. 각 종파의 이론이 지닌 상대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 ㄹ. 어느 한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실천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4)

19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기본적 자유는 평등하게 나누어 가져야 하며,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시키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합니다.

을: 모든 사회적 가치들 혹은 가치들의 모든 집합이 고유한 분배 영역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 분배 영역에서는 오직 특정한 기준과 제도들만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병: 강제와 부정의가 없이 어떤 대상물에 노동을 가하여 최초로 획득하거나 개인 간 자발적인 교환에 의해 이전된 소유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 ① 갑: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기본권 침해를 용인해야 한다.
- ② 을: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보편적 가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③ 병: 개인의 정당한 자유 행사 과정에 국가의 개입이 없어야 한다.
- ④ 갑, 을: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유 재산을 철폐해야 한다.
- ⑤ 을, 병: 약자를 배려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재화를 분배해야 한다.

15) 골라.

갑: 국가는 그것을 구성하는 세 계층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다른 계층의 일에 참견하지 않을 때 정의롭게 된다.
 을: 국가는 경쟁, 불신, 공명심으로 인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들이 만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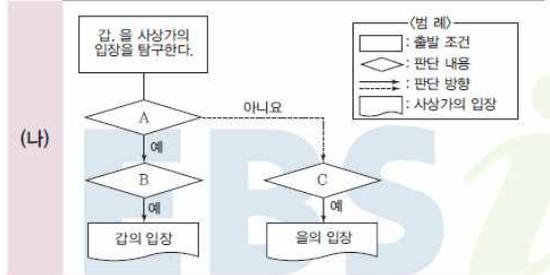
<보기>

- ㄱ. 갑: 정의로운 국가가 되는 데 필요한 덕이 정의로운 인간이 되는 데 필요한 덕과 다르지 않다.
- ㄴ. 갑: 통치자는 절대적인 선의 기준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ㄷ. 을: 국가는 개인들의 이기적 합리성에 근거한 인위적 산물이다.
- ㄹ. 을: 통치자가 절대 권력을 지녀서 사회적 재화를 모두와 공유해야 한다.

16)

18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고 한층 더 가치 있다. 쾌락을 평가할 때 오직 양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을: 어떤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니려면 반드시 의무로부터 행해져야만 한다. 의무로부터의 행위는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한 필연적 행위이다.



- ① A: 도덕의 근거가 되는 보편적인 원리가 존재하는가?
- ② B: 행위의 도덕성은 그 결과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는가?
- ③ B: 쾌락의 양이 쾌락의 질적 차이를 결정하는 기준인가?
- ④ C: 동정심이 행위에 도덕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 ⑤ C: 의무이기 때문에 한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없는 행위인가?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5

17)

2 (가)를 주장한 사상가가 (나)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 천자가 어질지 않으면 사해(四海)를 보존하지 못하고, 제후가 어질지 않으면 사직(社稷)을 보존하지 못한다.
•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을 가지고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정치를 하면 천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나) <문제 상황>
군주의 푸추간에는 고기가 넘쳐 나고 마구간에는 살찐 말이 가득 차 있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려 들판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잔뜩 널려 있다. 올곧은 신하들의 간언(諫言)이 전혀 수용되지 않으며,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아 사직이 위태롭다.

- ① 질서 유지에 필요한 강력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
- ② 군주의 본성[性]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백성들이 차별 없는 사랑[兼愛]을 실천하게 해야 한다.
- ④ 백성들이 선한 본성을 갖추게 되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 ⑤ 인의(仁義)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군주를 세우야 한다.

18)

14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태어나면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단지 재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되며, 그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갖고, 자신의 재능을 이용하여 그러한 행운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을: 중앙집권적 분배관 상상할 수 없고,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거나 분배를 결정하는 집단은 존재할 수 없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계약의 시행을 보장하는 등 극히 제한된 기능만을 담당해야 한다.
병: 어떠한 사회적 가치 X도 다른 사회적 가치 Y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X의 사회적 의미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들이 Y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는 서로 다른 이유와 서로 다른 절차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 ① 갑: 분배를 통제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파괴하는 것이다.
- ② 을: 자연적 우연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③ 병: 모든 재화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
- ④ 갑, 을: 사회적·경제적 재화의 불균등한 분배는 정의롭지 못하다.
- ⑤ 을, 병: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분배가 필요하다.

19)

19 갑, 을 사상가가 병의 입장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남녀의 목소리가 다르다는 관점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배려 윤리가 보여 주는 진실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며, 인간의 경험에 대해 더욱 발전된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을: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원칙을 아는 것보다 유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유덕한 사람이란 선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병: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법칙뿐이며 주관적으로 보면 나의 모든 경향성을 포기하고서라도 그 법칙을 따르겠다는 준칙뿐이다.

보기
ㄱ. 갑: 공감이나 동정심이 도덕의 중요한 요소임을 간과하고 있다.
ㄴ. 을: 도덕적 선을 지향하는 성품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
ㄷ. 갑, 을: 연대성이나 관계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ㄹ. 갑, 을: 남성과 여성의 도덕적 관심의 차이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0 다음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골라.

• 전쟁이 끝난 후 잠시 평화가 찾아와도 국가들은 더욱 강화된 재무장과 적대 정책을 세운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국가 간의 항구적인 평화 조약이 요구된다.
• 상비군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과 끝도 없는 군비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결국 군비의 과잉 지출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화보다는 오히려 단기간의 전쟁이 선택된다.

보기
ㄱ. 자국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전쟁은 허용되는가?
ㄴ. 전쟁 이전에 평화적 수단을 동원할 필요는 없는가?
ㄷ. 상비군의 존재는 영원한 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인가?
ㄹ. 적대 행위의 중단을 평화 상태에 대한 보증으로 간주할 수 없는가?

21)

20 다음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시민 불복종은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항거함으로써 정의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당한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성향은 질서 정연한 사회나 혹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속에 안정을 가져다준다.

보기

- ㄱ. 시민 불복종은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한 형태인가?
- ㄴ. 시민 불복종은 경고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위협일 수는 없는가?
- ㄷ.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정치 체제 변혁을 목표로 행해져야 하는가?
- ㄹ. 시민 불복종은 그 행위의 법적인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다 골라.

갑: 사회에서 각 개인은 공동체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신의 소명을 받았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각자는 자기의 특별한 분야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할 때만이 혼돈과 무질서를 피할 수 있다. 신은 정직하고 건실한 노동을 신 자신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으신다.
 을: 사적 소유가 지배하는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노동자의 노동 생산물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낫선 독립적인 힘으로 노동자를 지배한다. 그리고 노동자는 분업으로 인해 일면적이고 기계적인 노동에만 의존하게 된다.

<보기>

- ㄱ. 갑: 목상적인 삶이 육체적으로 땀 흘리는 노동보다 더 낫다.
- ㄴ. 갑: 노동과 신앙을 분리하여 합리적인 노동을 수행해야 한다.
- ㄷ. 을: 기술적 분업의 확대는 인간의 전면적 능력 발달을 저해한다.
- ㄹ. 갑, 을: 참된 노동은 개인의 자발적 의지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23)

8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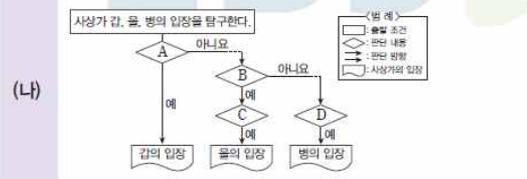
갑: 사이버 공간에서 나는 원하는 대로 자기 다른 여러 행위자로 행세할 수 있다. 그런데 사이버 자아의 정체성이 강화될수록 본래 자아의 정체성은 점차 무력해진다. 더욱이 다수의 사이버 자아로 활동할 경우,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어는 것이 나 자신인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을: 사이버 공간에서는 여러 자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자아를 실험하며, 이러한 실험을 통해 현실 세계의 본래 자아가 지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실적 자아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다양한 자아로 인한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

- ① 갑: 사이버 공간의 다중 정체성은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온다.
- ② 갑: 사이버 자아에 대한 몰입은 현실 세계의 본래 자아를 약화시킨다.
- ③ 을: 사이버 공간의 다양한 자아를 통해 현실적 자아가 성숙될 수 있다.
- ④ 을: 사이버 공간의 다양한 자아는 현실 세계에서 다양한 자아를 가져온다.
- ⑤ 갑, 을: 사이버 공간에서는 현실 세계와 달리 다양한 자아가 나타날 수 있다.

24)

9 (가)의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타인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전통 윤리의 가르침 만으로도 미래와 현재의 이웃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생태계 파괴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을: 쾌고 감수 능력은 적어도 이익 관심을 갖는다는 것의 전제 조건이며, 우리는 이익 관심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병: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내재적 존엄성을 지니며, 모든 도덕 행위자는 내재적 존엄성을 지닌 존재들의 선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보기

- ㄱ. A: 인간 중심 윤리만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 ㄴ. B: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가져야 도덕적 고려를 받을 수 있는가?
- ㄷ. C: 인간과 동물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는가?
- ㄹ. D: 인간 종은 다른 모든 종과 함께 상호 의존 체계의 통합적 구성 요소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25)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인간의 생득적 인격성은 그가 사형과 같이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형벌을 선고받을지라도 물건처럼 취급되는 것에서 그를 보호해 준다. 형벌은 사회적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될 수 없다. 형벌의 범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을: 인간의 정신에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지속도이다. 종신 노역형과 같이 범죄자가 지속적으로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사형보다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 형벌의 목적은 사람들이 유사한 범죄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하는 것이다.

- ① 갑: 타인을 살해한 범죄자는 사회에서 모든 인격이 상실된다.
- ② 갑: 형벌의 질은 응보법을 통해, 형벌의 양은 공리의 원리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 ③ 을: 형벌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비공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④ 을: 형벌은 시민의 이익이 아닌 범죄자의 교화를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
- ⑤ 갑, 을: 형벌은 법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원리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26)

13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는 사회적 가치이며, 정의의 원칙들은 그 형식에서 그 자체가 다원주의적이다. 을: 분배적 정의에 관한 정형적 원리는 재분배 행위를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며, 개인의 소유 권리 침해 포함한다. 병: 프롤레타리아가 자신을 인격으로서 주장하고자 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생존 조건인 노동 양식을 지양해야만 한다.
(나)	

- 【 보기 】
- ㄱ. A, F: 사회적 재화의 분배를 위한 하나의 보편적 기준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 ㄴ. B: 재화의 분배 과정이 정의로우도 결과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ㄷ. C, E: 분배적 정의 실현을 위해 사적 소유의 철폐가 불가피함을 간과한다.
 - ㄹ. D: 필요에 따른 분배가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 권리를 침해함을 간과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7)

1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음악은 군주와 신하, 윗사람들과 아랫사람들이 함께 들으면 곧 화합하고 공경하지 않는 이가 없게 된다. 음악이란 천하를 바로잡는 것이고 알맞게 조화시키는 규범이며, 사람의 감정상 없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을: 음악은 귀로 듣기에 즐거우나, 군주의 일과 부합되지 않고, 백성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는다. 지금 관리들이 천하의 이로움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를 제거하고자 한다면, 음악을 금하여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 ① 갑: 음악에는 감정을 순화하는 기능 이외에 다른 역할이 없다.
- ② 갑: 음악은 도덕적 교화를 이끌어 사회의 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 ③ 을: 음악은 즐거움을 가져다주지 않기 때문에 백성에게 해롭다.
- ④ 을: 음악을 유용성의 관점이 아닌 미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 ⑤ 갑, 을: 음악은 도덕적 가치가 아닌 쾌락적 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

28)

1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평등한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은 사회 계약론에서 자연 상태에 해당한다.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위치를 모르며, 누구도 자기가 어떠한 소질이나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는지를 모른다는 점이 다. 이처럼 정의의 원칙들은 무지의 장막 속에서 선택된다. 그 결과 원칙들을 선택할 때 아무도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보장된다.

- ① 원초적 입장의 상황은 순수한 가상적 상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② 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보다 우선된다.
- ③ 정의로운 결과를 판단할 독립적 기준이 없어도 공정한 절차를 따를 수 있다.
- ④ 유사한 수준의 능력과 재능을 갖춘 사람들은 유사한 수준의 성공에 대한 전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⑤ 무지의 장막 속 당사자들은 정의의 원칙을 택하는 데 영향을 주는 모든 일반적 사실들을 안다고 가정된다.

29)

17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동물과 관련한 인간의 의무는 인간성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불과하다.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를 갖지 않는다.</p> <p>을: 우리는 다른 모든 생명체와 동등한 자격을 지닌 지구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각각의 생명체는 자신을 보존하고 고유한 방식으로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p> <p>병: 우리는 대지의 이용을 경제적 관점만이 아니라 윤리적 관점에서도 고려해야 한다.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전에 기여한다면 그것은 옳다.</p>
(나)	

- ① A: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는 어떠한 가치도 부여되지 않음을 간과한다.
- ② B, E: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의 대상은 인간에만 한정되지 않음을 간과한다.
- ③ C: 개체 각각이 지닌 고유한 선을 보호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D: 자연 자체에 대해서도 인간의 의무가 발생함을 간과한다.
- ⑤ F: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오직 인간뿐이라는 점을 간과한다.

30)

4 갑, 을 사상가들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自然]을 본받는다. 도는 항상 무위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을: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 발휘하면 자신의 본성을 알게 되고, 본성을 알면 하늘[天]을 알게 된다.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키우는 것이 곧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다.

보기

- ㄱ. 도(道)의 관점에서 시비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가?
- ㄴ. 지속적인 수양을 통해 누구나 성인(聖人)이 될 수 있는가?
- ㄷ. 성(性)을 준 하늘의 명령에 순응하는 삶이 이상적 삶인가?
- ㄹ. 타고난 본성을 잘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한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1)

1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 안락사, 생명 복제, 기후 등 사회적 관심사를 윤리학의 주제로 삼아 도덕 문제에 대한 현실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윤리학이 도덕 현상과 문제를 명확하게 서술하고, 서술된 현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윤리학은 ㉠고 생각한다.

- ① 도덕성을 생물학적 진화 이론에 근거해 설명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②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③ 도덕적 관습이나 규범의 객관적 기술을 목표로 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④ 도덕규범을 경험적 사실로 간주하고 가치 중립적으로 탐구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⑤ 도덕 원리를 근거로 현실의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32)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행복은 인간 행동의 유일한 목적이며, 행복을 증진해 주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리주의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격이 전반적으로 도야되어야 한다.

을: 행복을 소망하고 구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 본성상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동시에 의무인 목적이 아니다. 의무가 문제일 때에는 행복을 전혀 돌보지 않아야 한다.

보기

- ㄱ. 갑: 사회적 행복을 증대하지 못하는 희생도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 ㄴ. 갑: 도덕적 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보편적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
- ㄷ. 을: 자연적 경향성은 이성이 수립한 법칙에 순응하는 한에서 보존되어야 한다.
- ㄹ. 갑, 을: 개인의 행복 추구하고 도덕적 행위는 양립 가능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33)

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시민 불복종의 이론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그 사회는 대체로 질서 정연하면서도 정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도 일어나는 그러한 사회이다. 거의 정의로운 국가는 민주 체제를 요구한다고 생각하기에 그 이론은 합법적으로 확립된 민주적인 권위에 대한 시민 불복종의 역할과 적합성에 관련된 것이다. 그것은 다른 형태의 정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우연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종류의 항의나 저항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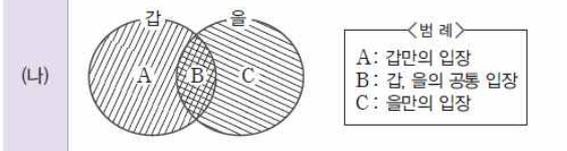
|| 보기 ||
 가.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와 법의 부정적인 정도는 서로 무관하다.
 나. 시민 불복종은 양심적이고 깊이 간직된 신념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다. 시민 불복종은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는 방도이다.
 라. 시민 불복종으로 인한 사회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불복종의 주체에게 있다.

-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 ④ 가, 다, 라 ⑤ 나, 다, 라

34)

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정의의 원칙은 제1원칙이 제2원칙보다 우선하는 서열적 순서로 배열되어야 한다. 이것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가 더 큰 사회적·경제적 이득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을: 소유물에서의 정의 이론의 일반적인 개요를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



|| 보기 ||
 가. A: 가상적 상황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은 공정하다.
 나. B: 타고난 운 자체는 도덕적 관점에서 임의적이지 않다.
 다. B: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해 사유 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다.
 라. C: 공리의 원리를 분배 정의의 원리로 여겨서는 안 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 ④ 나, 라 ⑤ 다, 라

35)

1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공화 정체인 국가들은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의해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된다. 그러한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결성한 평화 연맹에서 자유와 평화를 보장받고자 하며, 영구 평화를 위해 세계 시민적 체제로 나아가고자 한다.

- ① 공화 정체인 국가들은 평화 연맹에 주권적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
- ② 국가 간의 영구적인 평화는 평화 조약의 체결만으로도 가능하다.
- ③ 낯선 이방인이 평화롭게 행동해도 우호적으로 대우할 필요는 없다.
- ④ 비민주적인 국가는 세계 시민법을 통해 공화 정체로 변화해야 한다.
- ⑤ 영구 평화의 실현을 위해 연맹의 이념은 모든 국가로 확산되어야 한다.

36)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오직 보복법만이—그러나 물론 법정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는—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을: 형벌은 범죄자의 정신에 가장 지속적인 인상을 주면서 신체에는 가장 적은 고통을 주어야 한다. 종신 노역형이 사형에 비해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

|| 보기 ||
 가. 갑: 형벌은 범죄자의 동의가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
 나. 을: 형벌은 범죄 의지를 억제시키는 수단이어야 한다.
 다. 을: 형벌은 어떤 경우에도 한 시민에 대한 다수의 폭력 행위가 되지 않아야 한다.
 라. 갑, 을: 형벌은 반드시 법률을 통해서만 집행되어야 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라
- ④ 가, 다, 라 ⑤ 나, 다, 라

37)

1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차등의 원칙을 포함하여 정의의 두 원칙이 요구하는 배경적 제도들의 규칙들은 지속적이고 공정한 사회 협력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안되었다.

을: 차등의 원칙에 따른 재화의 재분배는 소유 권리적 정의관과 양립 불가능하다. 소유 권리적 정의관은 소유에 이르는 과정이 정당하면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부여된다고 본다.

◎ 학생 답안

갑은 ㉠ 차등의 원칙은 공정한 사회적 협력을 위한 원칙이라고 보며, ㉡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에 기여할 경우에만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을은 ㉢ 차등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며, ㉣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가 분배의 공정성의 정당화 조건이라고 보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8 [주관식] 골라.

시민 불복종은 어느 정도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다수가 갖는 정의감과 사회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시민 불복종은 도덕적으로 그른 것을 중단시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복원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때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불복종 행위로 인한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보아야 합니다.

보기

ㄱ. 갑: 시민 불복종은 비민주적 권위에 저항하는 합법적인 행위이다.

ㄴ. 갑: 시민 불복종은 공공의 정의관에 호소하며 정치 체제의 변혁을 시도한다.

ㄷ. 을: 시민 불복종은 성공 가능성과 불복종 행위의 영향을 고려해 실행되어야 한다.

ㄹ. 갑, 을: 시민 불복종은 민주 사회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며 실행되어야 한다.

39)

13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사회 계약의 목적인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는 얼마간의 인적 손실이 따르게 마련이다. 남들을 희생시켜 자기 생명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할 때에는 자기 생명도 내놓아야 한다. 죄인을 죽일 때는 '시민'으로서 보다는 적으로서 죽이는 셈이다.

(가) 을: 법은 최대 다수에 의해 공유된 최대의 행복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벌의 크기는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유익할 점은 인간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타인이나 사회에 양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보기

- ㄱ. A: 사형은 생명 보존의 계약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다.
- ㄴ. B: 살인자에 대한 사형 여부는 사회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 ㄷ. C: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공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 ㄹ. C: 형벌의 크기는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무관하게 정해져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0)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국가의 모든 사람이 부여한 권한으로 주권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강한 권력과 힘을 이용할 수 있고, 그것에서 나오는 공포에 의해 그는 모든 사람의 의사를, 국가 안의 평화를 유지하고 외부의 적에 맞서 단결하도록 이끌 수 있다.

을: 국가의 주된 목적은 시민의 생명, 자유, 자산을 보존하는 것에 있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공통의 동의를 통해 인정된 법률이 없고,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를 집행할 권력이 결여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권리와 기원을 볼 수 있다.

- ① 갑: 절대 군주와 인민은 서로 동등하게 자연권을 양도한다.
- ② 갑: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의한 자연적인 산물이다.
- ③ 을: 자연법의 지배는 국가 형성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④ 을: 입법권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자의적 지배권이다.
- ⑤ 갑, 을: 개인의 생명과 자유는 자연 상태에서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다.

41)

19 갑 사상의 입장에서 을 사상가에게 제기할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원조는 도덕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중요한 것을 희생하지 않고 막을 수 있는 해악인 극단적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지역과 국가를 구분하지 말고 모든 빈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을: 원조의 목적은 세계의 모든 빈곤자들을 구하는 데 있지 않고 고통받는 국가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만약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조직되고 지배된다면, 자원이 너무 부족해 질서 정연해질 수 없는 사회는 어디에도 없다.

- ① 극빈자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급선무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② 항상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먼저 도움을 주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원조의 목적은 공익 증진이 아닌 부정의의 교정에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④ 빈곤한 사람에 대한 원조 여부는 돕는 사람의 선택에 맡겨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⑤ 정의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로 변화시키는 것이 원조의 목적임을 간과하고 있다.

42)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사회의 기본 구조가 합당하게 정의로운 경우, 그 부정의가 지나치지 않으면 우리는 부정의한 법도 구속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법이나 정책에 대해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항거하는 공공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이다. 이 행위는 양심에 근거하기는 하지만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라는 점에서 종교적 신념이나 특정한 도덕관에 근거한 행위와는 다르다.

- ① 시민 불복종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시민 불복종은 양심과는 관계없이 공통된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 ③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시민들은 모든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에 대해 시민 불복종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⑤ 정의의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는 전혀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은 유일한 저항 수단이다.

43) [주관식]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다 골라.

국제법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즉 1) 국가들은 외적인 관계에서 보면 법적 관계에 있지 않다. 2) 이러한 상태는 전쟁의 상태이며 서로 이웃해 있는 국가들은 이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할 책무가 있다. 3) 근원적인 사회 계약의 이념에 따라 하나의 국제 연맹이 필요한데, 그것은 서로 타국의 국내 불화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공격에 대한 방위를 위한 것이다. 4) 그럼에도 이 결합체는 시민 체제에서와 같은 주권적 권력이 아니며, 단지 동료 관계를 함유해야 한다.

<보기>

- ㉠. 국제 연맹은 소속된 국가들에 대해서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국가들은 타국의 침략 행위에 대한 방어 전쟁을 할 수 있다.
- ㉢. 국가 간 현실적인 적대 행위가 없다는 것이 영구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 국가들은 타 국가 내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무력으로 개입해야 한다.

44) [주관식] 골라.

갑: 분배적 정의는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명예나 금전 [富]처럼 공공 재산을 분배함으로써 올바른 중간을 찾는 것이다.
 을: 분배적 정의에 관한 대부분의 원리들은 정형적이다. 하지만 소유 권리에 근거한 나의 입장은 비정형적이다.
 병: 분배적 정의는 계급과 계급이 대립하는 사회가 아니라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공산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다.

<보기>

- ㉠. 갑: 각자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공공 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한다.
- ㉡. 을: 도덕적 공과(功過)와 사회적 효용을 기준으로 하는 한 분배는 정의에 부합한다.
- ㉢. 병: 능력에 따른 노동과 필요에 따른 분배를 실현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한다.
- ㉣. 갑, 을: 거레에 의한 취득과 양도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정의에 부합한다.

45)

8 다음 관점을 지닌 사람이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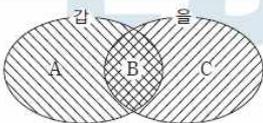
윤리적인 동정심을 가진 예술가는 없다. 예술가가 윤리적인 동정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매너리즘이다. 병적인 예술가도 있을 수 없다. 예술이란 어떤 것이든 표현할 수 있다. 사고와 언어란 예술가에게는 예술을 위한 도구이다. 악덕과 미덕은 예술가에게는 예술을 위한 재료이다.

- ① 도덕적 가치가 미적 가치보다 우위에 있다.
- ② 창작자와 감상자가 공감할 수 있는 작품만이 가치를 지닌다.
- ③ 예술은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정신 활동의 표현이다.
- ④ 인간의 도덕적 품성 함양에 이바지하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다.
- ⑤ 예술의 가치는 예술이 지니는 아름다움 그 자체로 평가되어야 한다.

46)[바나나]

9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자유 세계에서 새로운 소유물은 자발적 교환으로부터 발생한다.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하다.
 을: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우선,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하에 모두에게 열려 있는 직책과 직위에 결부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와야 한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보기

- ㄱ. A: 개인은 자신이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 ㄴ. B: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
- ㄷ. B: 평등한 기본적 자유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 ㄹ. C: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가 정당화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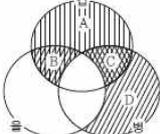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철학자는 육체를 신동치 않게 여기며, 그 영혼은 육체를 피하여 홀로 있으려 한다. 사유는 청각이나 시각, 고통, 쾌락이 정신을 괴롭히는 일이 없는 죽음 이후에 가장 잘되는 것이다. 영혼은 육체적 감각이나 욕망을 전혀 갖지 않고 참으로 존재하는 것을 추구할 때 가장 잘 사유하게 된다.
 을: 인간은 언제나 죽음과 함께하고 있는 현존재이다. 인간에게 죽음은 고유한 것이며, 결코 남과 바꿀 수 없는, 반드시 찾아오는, 그리고 그것을 초월해서 살 수 없는 가능성이다. 인간은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항상 죽음은 자기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살아야 한다.

- ① 갑은 죽음을 내세에서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갑은 죽음을 순수한 인식을 불가능하게 하는 감옥으로 본다.
- ③ 을은 죽음을 인지하면 누구나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죽음을 올바르게 인식함으로써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유한한 인간은 살아 있는 동안 죽음을 직시할 수 없다고 본다.

48)[주관식] 골라.

(가) 갑: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 평등을 요구하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허용하지만 그것이 최소 수혜자의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로 제한된다.
 을: 유용성이란 어떤 대상이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이익, 쾌락, 좋음, 행복을 산출하거나 해악, 고통, 악, 불행은 막는 경향을 지닌 속성을 말한다. 그것이 공동체 전체라면,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말한다.
 병: 누가 소유물을 받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은 주는 행위를 완전히 무시하게 된다. 즉 받는 사람 중심의 이론은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권리를 완전히 무시해 버린다.

(나)  (범례)
A: 갑, 을의 공통 입장
B: 갑, 을만의 공통 입장
C: 갑, 병만의 공통 입장
D: 병만의 입장

보기

- ㄱ. A: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경우에 한해 정당화된다.
- ㄴ. B: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당사자들은 서로에 대해 무관심한 합리적 개인이다.
- ㄷ. C: 천부적 재능의 우연한 분포를 사회적 자산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ㄹ. D: 국가의 역할은 계약의 집행 및 강압, 절도, 사기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된다.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49[주관식] 골라.

- 인류는 지구상에 계속 존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요청된다. 이제 우리는 자연에 대한 책임, 미래 지향적 책임,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에 대한 책임까지 숙고해야 한다.
- 행위를 못하게 막는 공포가 아니라 행위를 하도록 북돋우는 공포가 바로 책임의 본질적 속성이며, 우리가 뜻하는 공포도 바로 그런 것이다. 이것은 또한 책임의 대상에 대한 공포이기도 하다.

보기

- ㄱ. 인간의 선택만 아니라 인간 외적인 사물의 선택도 탐구해야 한다.
- 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의 실제성에 대한 충분한 조건이 된다.
- ㄷ. 현대에게는 미래 세대에 대한 비호혜적 책임의 의무가 부과된다.
- ㄹ. 도덕 철학은 불행이 아닌 구원의 예언을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50)

18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다른 존재에 대한 유용성이나 이익과 무관하게 자신의 복지를 추구하는 최소한 한 살 이상의 정상적인 포유류와 같이 '삶의 주체' 기준을 충족하는 존재라면, 동물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내재적 가치를 갖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우리는 이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을: 동물은 쾌고를 느낄 수 있으므로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렇다고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동물은 인간과 달리 도덕 원리를 파악하고 적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권리는 인간 세계에 그 기원을 두고 있고, 또 인간 세계 내부에서만 적용 가능하다.

- ① 갑: 삶의 주체인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 ② 갑: 도덕 무능력자에게는 도덕 행위자들의 권리를 인정할 의무가 없다.
- ③ 을: 동물의 세계에도 도덕적 관계가 존재한다.
- ④ 을: 인간만이 도덕적인 존재이므로 권리를 갖는다.
- ⑤ 갑, 을: 인간은 동물을 함부로 학대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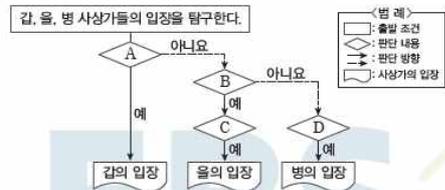
51)

6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 갑: 분배적 정의는 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중립적인 개념은 '개인의 소유물'이다. 각자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소유 권리를 갖는 것이 정의이다.
- 을: 분배적 정의의 핵심 과제는 사회 체제의 선택이다. 사회 체제는 특수한 상황의 우연성을 처리하기 위해 순수 절차적 정의의 관념에 따라 기획되어야 한다.
- 병: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들은 사회적 가치들이다. 세계 안에 존재하는 가치들은 사회 속에서 가치의 구성과 창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이한 사회에서는 상이한 의미를 갖는다.

(나)



보기

- ㄱ. A: 천부적 재능 자체는 공동 자산으로 간주될 대상이 아닌가?
- ㄴ. B: 정의의 원칙은 가상적 상황에서 고안되어야 하는가?
- ㄷ. C: 자본주의 복지 국가는 정의의 원칙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는가?
- ㄹ. D: 모든 사회적 가치들은 문화적·역사적 맥락에서 의미가 부여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52[주관식] 골라.

갑: 원조는 공리주의 입장에 기초해 빈곤한 사람들의 고통의 감소와 기본적 욕구의 충족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

을: 원조는 고통을 겪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만민의 사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 ① 갑: 원조는 친소(親疏) 논리와 개인의 소유 권리론에 근거해야 한다.
- ② 갑: 원조의 목적은 고통을 겪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게 하는 것이다.
- ③ 을: 원조의 목적은 전 세계 최소 수혜자들의 복지 실현에 있다.
- ④ 을: 원조는 재분배나 개인의 복지가 아닌 사회의 정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⑤ 갑, 을: 원조는 윤리적 의무이며 세계 시민주의 정신에 근거해야 한다.

53)

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국가의 권력, 또는 입법부의 권력은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보장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양도하며, 입법권은 인민의 평화와 공공선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을: 국가의 권력은 계약 이행의 강제, 절도 행위의 금지 등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러한 최소 국가는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발생하며,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최소 국가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서는 최대로 포괄적인 국가로 남는다.

- ① 갑: 국가의 자의적 권력 행사에 대해 인민은 저항할 권리가 없다.
- ② 갑: 국가는 인민의 자유 보장에 반하는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을: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소유물이 이전된 결과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 ④ 을: 국가는 근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 ⑤ 갑, 을: 국가는 개인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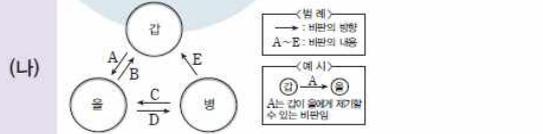
54)

1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E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어떤 존재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도덕적 논증은 있을 수 없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는 존재들 간의 동일한 고통을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을: 모든 생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동등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성장, 발전, 번식을 지향하는 존재는 고유한 선을 지닌다.

병: 욕구를 가진 존재는 타자와 구분되는 자신의 복지를 갖고 있다. 이 존재는 희망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삶의 주체이며 수단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 보기**
- ㄱ. A: 종(種)의 차이만으로 도덕적 지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됨을 간과한다.
 - ㄴ. E: 왜고 감수 능력이 삶의 주체인 동물의 복리(福利) 고려를 위한 충분조건이 아님을 간과한다.
 - ㄷ. B, D: 인간은 생명체에 끼친 해악에 대한 보상적 정의의 의무를 지님을 간과한다.
 - ㄹ. C, E: 성장한 포유 동물이 인간의 이익을 위한 자원으로 대우받을 수 있음을 간과한다.

55)

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3점]

갑: 자연 상태에서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만한 공통의 동의와 사람들 간의 분쟁을 판결할 공통의 척도에 따라 확립된 안정된 법이 없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 상태의 특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사회를 만들게 된다.

을: 일정한 생활 근거(恒産)가 없더라도 일정한 마음(恒心)을 갖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다. 일반 백성은 일정한 생활 근거가 없으면 일정한 마음도 없어진다.

- ① 갑은 국가가 공통된 기준에 따라 징벌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본다.
- ② 을은 국가가 백성에게 물질적 안정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국가가 인의(仁義)가 아닌 공정한 법(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④ 갑은 국가의 정당성이 계약에, 을은 군주의 정당성이 하늘의 뜻을 받드는 도덕성에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국가가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56[주관식] 골라.

갑: 영원한 평화를 위해 전쟁을 전제로 하는 상비군은 조만간 폐지되어야 한다. 또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을: 전쟁이나 테러 같은 직접적 폭력과 달리 사회 구조 자체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폭력도 있다. 문화적 폭력은 이 두 가지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① 갑: 전쟁을 영원히 종식하기 위해서 국가 간 평화 연맹이 필요하다.
- ② 갑: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이방인은 일시적 방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 ③ 을: 문화는 폭력의 정당화는 물론 평화의 정당화 기능도 수행한다.
- ④ 을: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거쳐 직접적 폭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 ⑤ 갑, 을: 제도 개선이 진정한 세계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57)

8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는 오직 기술과 학문에 달려 있으며, 자연은 오로지 복종함으로써만 복종시킬 수 있다. 인간의 자식이 인간의 힘이다.
 을: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이 개체들은 단순히 생존한다는 것을 넘어 지각과 기억, 선호와 복지 등을 지닌 삶의 주체이다.
 병: 흙, 물, 식물, 동물은 자연 상태로 존속할 권리가 있다. 대기 윤리는 인류의 동료 구성원에 대한 존중, 생명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수반한다.

(나)

- D: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개체가 지닌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F: 인간은 자연과 동물을 삶에 필요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A, C: 이성적 사유 능력이 없는 존재도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간과한다.
- B, D: 도덕적 무능력자라도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B, E: 생명 공동체에 대한 존중은 인간의 도덕적 의무임을 간과한다.

58)

10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어떤 사회가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조직되고 통치된다면, 천연 자원이 부족하고 부가 빈약하다고 해서 그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없는 경우는 없다. 질서 정연한 사회와 고통받는 사회의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는 천연자원의 유무나 빈곤이 아니라 정치 문화, 정치적 태도 등이다. 고통받는 사회들은 정치적·문화적 전통들을 결핍하고 있으며,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빈곤한 개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원조만이 도덕적 의무이다.
- 원조의 목적은 빈곤국의 물질적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 천연자원이 부족한 빈곤국이라도 원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원조를 통해 질서 정연한 사회들의 복지 수준을 일치시켜야 한다.
- 원조를 통해 고통받는 사회들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59) [주관식] 골라

갑: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해석자로서 자연의 질서에 대해 고찰한 것만큼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을: 생명이 있는 것은 연기(緣起)에 의해 있는 것이니 폭력을 쓰지 말라.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여도 안 되고, 죽이는 것을 묵인해도 안 된다.
 병: 생명이 있는 존재는 의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기 보존과 선(善)을 향해 움직인다는 점에서 동등하다.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생명의 중심이다.

(가)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

(나)

- 보기
- A: 자연을 인간의 의도에 맞게 응용하고 조작해야 하는가?
 - B: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그물망처럼 상호 의존적 관계인가?
 - C: 생명을 존중하는 불살생(不殺生)과 방생(放生)의 삶을 실천해야 하는가?
 - D: 생명 공동체의 도덕 행위자는 모든 생명체들의 선을 존중해야 하는가?

60)

6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각 개인에게는 신께서 지정하신 생활 방식이 있다. 그것은 일종의 초소와 같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명에 순종하여 따른다면 아무리 비천하고 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밝게 빛나고 매우 존귀한 것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노동할 때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고 느끼고, 정신적·육체적 에너지를 자유롭게 발전시키지 못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업은 노동의 생산력과 사회의 부(富)를 높여 주지만, 노동자를 특정한 능력만 반복 사용하는 기계로 만든다.

- 갑: 부지런히 일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것이 신의 뜻이다.
- 갑: 모든 소명은 존귀하기에 직업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 을: 기술적 분업의 심화는 노동자의 자율성과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온다.
- 을: 인간의 본질 실현을 위해서는 사적 소유의 폐지와 분업의 철폐가 필요하다.
- 갑, 을: 노동의 본질을 생계유지의 수단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61)

4 갑 사상이가 을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경향성에 따라 결심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행복을 증진해야 하는 것은 경향성 때문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이라는 법칙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경향성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행위 할 때 비로소 그 행동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을: 행위는 행복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옳은 것이 되고, 행복에 반대되는 것을 산출하는 데 기여하는 정도에 비례해 그른 것이 된다. 그런데 쾌락을 평가할 때에는 양 외에 질도 고려해야 한다.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 보기 】

- ㄱ. 자기 행복은 도덕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ㄴ. 선의지로부터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님을 간과한다.
- ㄷ. 행복과 만족이라는 전혀 다른 두 관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함을 간과한다.
- ㄹ. 자신의 행복에 마음을 쓰는 것은 도덕적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간과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62[주관식]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

갑: 모든 공동체는 선을 추구하는데, 모든 공동체 중에서도 최고이며 다른 모든 공동체를 포괄하면서 최고선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다른 어떤 국가 또는 정치 공동체이다.

을: 어떤 정부의 영토의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럼으로써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며, 적어도 그러한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 그 정부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

- ① 갑: 정치적 의무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서 유래한다.
- ② 갑: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간의 합의에 의해 국가가 발생한다.
- ③ 을: 명시적 동의를 한 사람만이 정치적 의무를 지게 된다.
- ④ 을: 입법권을 항상 지닌 국민이 신탁을 위반한 정부를 교체할 수 있다.
- ⑤ 갑, 을: 국가는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개인이 국가에 우선한다.

63)

14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모든 예술은 쓸모가 없는 것이며, 예술가는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존재로서 아름다운 것에서 아름다운 의미를 볼 수 있는 선택된 존재들이다. 예술가에게 윤리적 공감은 필요 없다.

을: 좋은 예술이 되려면 작가가 직접 체험한 감정을 작품 안에 담아냄으로써 독자가 작가의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만인을 결합시키는 감정으로서 인간은 누구나 다 신의 아들이고 같은 동포라는 자각에서 나오는 감정과 단순하면서도 일상적인 감정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병: 취미란 대상이나 표상 방식을 일체의 관심 없이 만족 또는 불만족을 통해 판정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러한 만족의 대상을 아름답다고 일컫는다. 미적 판단은 감성적 판단이기 때문에 주관적이며 조금의 이해 관심이 섞여 있지 않다. 그런데 미적 판단에는 보편성에 대한 요구가 결합되어 있다.

- ① 갑: 예술은 그 자체 이외의 어떤 목적도 가져서는 안 된다.
- ② 을: 예술은 사랑이 넘치는 도덕적 사회 구현에 기여해야 한다.
- ③ 병: 미적 판단은 주관적이며 도덕적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 ④ 갑, 병: 예술은 도덕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성을 지닌다.
- ⑤ 을, 병: 예술 활동은 도덕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64)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평화 상태는 국가 간의 제약이 없이는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평화 연맹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평화 연맹은 자유의 유지와 보존을 위하여 타국과 결합하는 것이며, 이 이념은 점차 각국에 확대되어서 궁극적으로 영구 평화로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인 우호 관계의 조건에 의해서 제한되어야 한다.

을: 진정한 평화는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 모두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폭력은 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폭력의 삼각형에서 어떤 꼭짓점에서든 출발할 수 있고 다른 꼭짓점으로 쉽게 전달된다.

- ① 갑: 영원한 평화를 위해 세계 시민법의 내용에는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 ② 갑: 영원한 평화를 위해 각 국가는 자유를 포기하고 공법의 규제하에 들어가야 한다.
- ③ 을: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만이 모든 폭력의 출발점이 된다.
- ④ 을: 정치적·경제적 차원의 제도적 개혁은 평화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 ⑤ 갑, 을: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무력을 포기해야 한다.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65[주관식]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

(가) 갑: 공동의 힘 전체를 구성원 각자의 인격·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데 쏟는 결사의 형태, 이를 통해 각자가 전체와 결합되어 있으면서도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결사의 형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사회 계약이다.
을: 공정한 재판권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자기 재산에 대한 안전한 향유가 불확실하므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집행권을 사회에 양도해 입법 기구가 사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더라도 위탁받은 입법 기구의 권한 남용은 국민의 복종할 의무를 무효화한다.

(나)

- ① A: 주권은 대의제에서 입법을 목적으로 할 때에만 양도될 수 있는가?
- ② B: 일반 의지를 따르는 한 자신도 자유롭고 타인의 자유도 보장되는가?
- ③ B: 항상 옳고 공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를 통치 원리로 삼아야 하는가?
- ④ C: 사회 계약은 각자의 인격과 재산의 안정적 보존을 위해 필요한가?
- ⑤ C: 자연법의 기초는 이성이며 자연법 준수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66)

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풍요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기초적 복지를 위협하지 않고도 극단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풍요로운 사람들은 그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원조해야 한다.
을: 고통받는 사회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는 데 필요한 정치 문화가 결핍되어 있다. 질서 정연한 사회는 고통받는 사회가 적정 수준의 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원조해야 한다.

- ① 갑: 원조의 효율성을 고려해 인접국의 빈민만을 원조해야 한다.
- ② 갑: 원조의 결과로 모든 사람의 경제적 이익이 증진되어야 한다.
- ③ 을: 원조 시행 시 인권에 대한 강조는 원조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
- ④ 을: 고통받는 사회에 대한 원조는 차등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 ⑤ 갑, 을: 절대 빈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은 원조 목표가 될 수 없다.

67)

18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인간은 통상 한갓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어떤 존재자에 대한 의무를 가질 수 없다. 자연 중 생명이 없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파괴적 성향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반한다.
을: 지구 생물권 자체가 유기체와 유사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유로 실체의 안녕이 윤리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초유기체가 아니라 개별 유기체의 고유한 선이다.
병: 토양-식물-동물-인간이라는 먹이 사슬에 의존하고 있다는 근본 사실을 일깨우는 경험이라면 어떤 것도 가치 있다. 유기체의 내적 자기 회복 능력은 인간과 토양 모두에 적용된다.

- ① 갑, 을: 생태계의 모든 존재가 인간의 직접적 의무 대상인 것은 아니다.
- ② 을, 병: 생물 군집과 생태계는 상호 작용의 긴밀한 질서 체계이다.
- ③ 을, 병: 개별 유기체의 고유한 선은 생태계 전체의 선보다 우선한다.
- ④ 갑, 을, 병: 인격 상호 간의 도덕적 의무는 규범적 당위성을 갖는다.
- ⑤ 갑, 을, 병: 도덕 행위자는 생태계의 동식물에게 잔혹해서는 안 된다.

68)

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인간 집단의 근본 관심은 강제력 없이 완전히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정의는 있되 비폭력적인 강제력이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비폭력적 강제력과 저항은 사회생활에서의 합리적 요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합리적인 사회라면 강제력과 갈등의 완전한 제거보다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의 정당성 여부에 더 큰 강조점을 둘 것이다.

『보기』
ㄱ. 강제력의 사용 없이는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ㄴ. 인간의 합리성이 수궁할 수 있는 강제력을 사용해야 한다.
ㄷ. 집단 간의 힘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강제력의 사용이 필요하다.
ㄹ. 개인 간의 갈등은 강제력 없이 합리적 요소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69)

17 갑, 을 사상이들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취미(趣味)란 일체의 관심을 떠나 만족 또는 불만족에 의해 대상 또는 표상의 양식을 판정하는 능력이다. 그러한 만족의 대상을 아름답다고 부른다. 미(美)에 관한 판단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혼합하면 그 판단은 편협함 또는 편파성이 개입되어 순수한 취미 판단일 수 없다.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을: 농부가 음악에 빠지면 경작에 전념할 수 없어 곡식이 부족해지고, 여인이 음악에 빠지면 천이나 비단 짜는 일에 전념할 수 없어 입을 것이 부족해진다. 왕공대인이 음악에 빠지면 나라를 돌보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음악을 즐기는 것은 잘못이다.

- ① 갑: 미적 가치의 추구 활동은 인간의 도덕성 실현과 무관한가?
- ② 갑: 취미 판단은 논리적 인식에 의한 판단이 아닌 감성적 판단인가?
- ③ 을: 음악은 노동 의무의 고양과 통치 질서의 확립을 위해 필요인가?
- ④ 을: 음악의 목적은 도덕적 품성 함양이므로 감정 표현과는 무관한가?
- ⑤ 갑, 을: 음악은 사회적·정치적 효용성과 상관없는 순수 예술의 영역인가?

70[주관식] 골라.

갑: 정치 공동체는 구성원의 동의에 의해 형성된다. 이들은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재산의 안전한 향유와 평화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국가는 사회의 모든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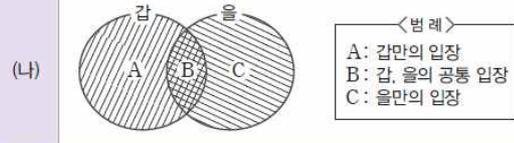
을: 모든 공동체는 좋음[善]을 실현하기 위해 형성된다. 가정과 마을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국가도 자연스러운 것이며, 국가는 이러한 공동체들의 최종 목표로 으뜸가는 좋음을 가장 훌륭하게 추구한다.

보기

- ㄱ. 갑: 국가는 시민의 자유 보호를 위해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ㄴ. 갑: 국가는 명시적 동의를 한 시민에게만 법률의 집행권을 행사해야 한다.
- ㄷ. 을: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의해 형성되어 시민의 훌륭한 삶을 위해 존속한다.
- ㄹ. 갑, 을: 국가는 개인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 공동체이다.

71[주관식] 골라.

(가) 갑: 개인은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차등의 원칙은 자신의 천부적 재능을 더 적은 재능을 타고난 이들의 선에 공헌하도록 사용하는 방식이다.
 을: 개인은 자신의 천부적 재능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니며, 이로부터 유출되는 소유물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차등의 원칙은 정형적 원리로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



보기

- ㄱ. A: 천부적 재능 분포의 자연적 사실은 부정의하므로 조정되어야 한다.
- ㄴ. A: 사회적 약자의 이익 증진을 위해 자신의 천부적 재능을 사용할 수 있다.
- ㄷ. B: 자신의 천부적 재능 자체에 대한 개인의 소유는 기본적인 자유로 보장되어야 한다.
- ㄹ. C: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하는 분배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72)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떠한 전쟁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한다.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가장 적절한 체제인 공화제를 위해 노력해야만 하며, 이러한 준칙을 받아들이는 것은 의무이다. 또한 근원적인 사회 계약의 이념에 따라 국가들의 평화 연맹이 필요하며, 오직 이러한 보편적인 평화 연맹에서만 확정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영원한 평화 상태에 이를 수 있다.

- ① 영원한 평화를 위해 평화 연맹은 주권적 권력을 지녀야 한다.
- ② 주권국들은 평화 연맹을 결성해 정치와 도덕을 분리시켜야 한다.
- ③ 공화제가 아닌 국가에 무력을 행사하여 공화제를 확산시켜야 한다.
- ④ 영원한 평화를 위해 평화 연맹을 국제 국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⑤ 평화 연맹은 주권 국가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만 관여해야 한다.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73[주관식] 골라!

‘인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류가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존재론적 명령이 된다. 따라서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실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후세대의 권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은 의무로 인정된, 다른 존재에 대한 염려이며, 책임의 대상에 대한 공포를 자신의 공포로 습득하여 행위의 의무로 전환시킨다.

- 보기
- ㄱ. 미래 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일방적 책임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 ㄴ. 현세대는 자기 행위에 대한 사전적 책임을 의무로 수용해야 한다.
 - ㄷ. 현세대의 책임의 범위는 미래 세대의 실존 보장으로 한정해야 한다.
 - ㄹ. 미래에 대한 공포보다 희망에 근거해 현세대의 책임을 도출해야 한다.

74[주관식] 골라.

(가)	<p>갑 인간이 아닌 존재와 관련한 의무를 이들에 대한 의무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동물 학대는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p> <p>을 인간과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존재들은 생명에 대한 자연적인 권리를 동등하게 갖는다.</p> <p>병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고 고유의 선을 증진할 능력과 기회가 있는 생명체는 자유롭다.</p>
(나)	<p>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p>

- 보기
- ㄱ. A: 인간이 아닌 존재와 관련한 인간의 의무는 성립 불가능한가?
 - ㄴ. B: 일부 생명체만이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 ㄷ. C: 이성적 존재만이 아니라 비이성적 존재도 권리를 지닐 수 있는가?
 - ㄹ. D: 생태계에 대한 개입이 자연 존중의 태도와 양립할 수 있는가?

75

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이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과제를 이루려면 안도감과 평화를 주는 거주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거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단순히 집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간이 거주할 수 있으려면 임시로 아무 곳이나 정착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거주를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거주는 특정한 장소를 집으로 삼아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공공의 영역과 분리된 사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을 때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고, 자기 삶의 중심인 집에서의 체험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 ① 거주는 인간의 선천적 본능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완성된다.
- ② 거주는 집을 소유하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
- ③ 거주는 인간이 친밀한 공간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 ④ 거주는 의미가 체험이 아닌 특정 장소에 속함으로써 결정된다.
- ⑤ 거주는 인간이 세계로부터 영원히 고립되어 삶의 중심을 발견하는 것이다.

76[주관식] 골라.

갑: 시민 불복종은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정의로운 제도와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도이다.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항거함으로써 정의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을: 시민 불복종은 다수를 위협하거나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화된다.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법과 민주주의에 가할 타격, 즉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한다.

- ① 갑: 모든 사회는 시민 불복종을 통해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
- ② 갑: 다수가 공유하는 종교적 교설이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이다.
- ③ 을: 시민 불복종에 앞서 합법적 해결 방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 ④ 을: 시민 불복종은 실패에 따른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시행해야 한다.
- ⑤ 갑, 을: 시민 불복종은 민주적 체제의 합법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역대 ebs 수완 모고 선별 [짝수년] 답

- 1) 가, 라
 - 2) ④
 - 3) ⑤
 - 4) 가, 다
 - 5) ③
 - 6) ④
 - 7) 가, 다
 - 8) ②
 - 9) ②
 - 10) ①
 - 11) ②
 - 12) ③
 - 13) ⑤ 원효-불교, 일심, 화쟁을 알면 선지 조합으로 답을 골라낼 수 있고 있어야 함. 객관식은 선지 조합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14) ③
 - 15) 가, 나, 다
 - 16) ②
 - 17) ⑤
 - 18) ③
 - 19) ④
 - 20) 가, 다, 라
 - 21) ①
 - 22) 다, 라
 - 23) ④ 독해 문제 치고는 괜찮은 듯
 - 24) ④
 - 25) ⑤
 - 26) ③
 - 27) ②
 - 28) ②
 - 29) ②
 - 30) ③
 - 31) ⑤
 - 32) ⑤
 - 33) ③
 - 34) ②
 - 35) ⑤
 - 36) ⑤
 - 37) ④
 - 38) 다, 라
 - 39) ①
 - 40) ⑤
 - 41) ①
 - 42) ③
 - 43) 나, 다
 - 44) 가, 다, 라
 - 45) ⑤
 - 46) ③
 - 47) ④
 - 48) 가, 라
- 을-벤담
- 49) 가, 나, 다
 - 50) ③
- 갑-레건, 을-코헨(제시문 읽고 인간중심주의인지만 파악하면 됨)
- ② 바나나 선지임. 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51) ⑤
- 갑-노직, 을-롤스, 병-왈처
- 52) ④
 - 53) ⑤
 - 54) 나, 다
 - 55) ③

- 갑-로크, 을-맹자
- 56) 모두 정답
 - 57) ①
 - 58) ③
 - 59) 가, 다, 라
 - 60) ③
 - 61) ①
 - 62) ①
 - 63) ③
 - 64) ④
 - 65) ②, ③, ④, ⑤
- 갑-루소, 을-로크
- 66) ③
 - 67) ③
 - 68) ④
 - 69) ②
 - 70) 가, 다
 - 71) 다, 라
 - 72) ⑤
 - 73) 가, 나
 - 74) 나, 다, 라
 - 75) ③
 - 76) ③